

(주)클루엠

일회용 인증으로 휴대폰 인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편리함과 각종 혜택으로 국내 성인 1인당 평균 4장을 갖고 있다는 신용카드. 그러나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신용카드사용 피해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의 카드를 복제해 금품을 구입하는 범 죄는 해마다 만 건이 넘고 작년 한 해에만 피해액이 백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기존 마그네틱 카드에서 복제가 어려운 IC칩카드와 단말기로 교체된다지만, 여전히 카드정보 및 비밀번호 유출의 위험성은 사용자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사용은 간편한 '그것'은 없을까? 질문에 대한 단서는 클루엠(대표 김동규 www.cluem.com)에서 찾을 수 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 하면서도 간편하게 개인인증 및 카드거래를 가능케 하는 클루엠의 보석같은 기술을 살펴본다.



cluem (주)클루엠

- 대표 : 김동규 ■ www.cluem.com ■ 설립일 : 2006년 8월 21일
- 사업개요 : 자동인식, 개인인증 및 보안영역을 기반으로 휴대폰 인증 솔루션 공급
- 자본금 : 8억 ■ 직원수 : 17명

휴대전화에서 일회용 바코드·비밀번호를 생성, 보안성과 편리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야심만만 벤처 클루엠. 지난 2006년 8월 법인 설립된 클루엠은 이제 갓 만 1년을 넘긴 새내기 벤처이다. 그러나 기술력과 사업 추진력만큼은 노련하고 거침없다.



“클루엠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OTP (One Time Password), OTB(One Time Barcode) 기술로 하나의 인증번호, 카드번호를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보안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장의 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만 가지고도 간편하게 인증과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편리함을 무기로 개인보안인증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핵심기술을 특화하기 위해 그 부분만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단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지요.” 빠른 기술 개발과 상용화 진행의 비결을 문자 김동규 대표가 답한다.

사실 클루엠은 김동규 대표에게 여섯 번째 법인이다. 그는 콜센터 전문 아웃소싱업체 이케이패퍼를 비롯한 인력파견 및 콜센터 사업과 관련된 다섯 개의 사업체를 이끌고 있다. 인력관리와 모바일 개인인증 서비스 사업. 이 이중異種의 사업간 연관 고리를 문자 그는 이렇게 답한다.

“5대 통신사에 콜센터 전문 인력파견 사업을 해온 터라 휴대전화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 모바일을 이용한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쭉 갖고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기술이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국내의 기술도 성장했다고 생각했구요.” 김 대표의 말처럼 꾸준한 관심과 제반 기술의 성장은, 일을 즐기고 재밌어 하는 클루엠 직원들의 노력과 한양대학교와의 산학협력연구를 통해 일회용 바코드 및 패스워드 생성 기술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다. 클루엠만의 OTB, OTP 시스템으로 국내특허 2건을 취득하였고 현재 국내 특허 1건, 국제 특허 PCT출원도 1건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개인인증과 신용카드 시장에 블루오션을 열다

클루엠의 솔루션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OTCard. 일회용 카드정보를 생성하는 모바일 솔루션인 OTCard를 다운받아 필요할 때 마다 1회용으로 카드번호와 바코드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이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칩과 단말기가 필요해 널리 범용화 되지 못했던 반면, 클루엠의 기술력은 개인 휴대전화에 ▶별도의 하드웨어 투자비용 없이 ▶단 한 번의 다운로드만으로 ▶네트워크 접속 없이 ▶1~2분 단위로 바뀌는 안전한 1회용 카드번호를 생성 ▶여러장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같은 원리로 카드 단말기를 모바일 안에서 구현한 OTCheck도 눈에 띈다. 모바일 POS 가상단말기인 OTCheck는 별도 승인 단말기 없이 모바일에 OTCheck솔루션을 다운받아 휴대폰에서 결제승인을

할 수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별도 단말기 구비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카드결제가 어려웠던 주문배달 및 퀵서비스, 대리운전 시장에서 결제가 가능해져, 거의 현금만이 통용 되어온 시장에서 카드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선불카드처럼 사용하면서도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 복제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Upin도 앞으로 만나볼 수 있는 클루엠만의 서비스이다. 특히 T머니처럼 소매점의 POS기에 접촉하여 간편하게 사용하면서도 잔액 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요즘 젊은세대의 필수품인 멤버십 카드, 포인트 카드 적립도 한 번에 가능하다.

내년 초쯤이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게 된다는 클루엠의 솔루션은 시장의 정보보안 솔루션, 자동인식 솔루션과 부분적으로 비슷할 뿐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 블루오션을 창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국내 카드사인 LG카드와 기술 협력은 물론 글로벌 카드사인 VISA카드와 OTCard에 대한 국제 기술 표준을 검토 중이다. 도박사이트에서 복제카드 번호를 사용하는 등의 카드불법 사용에 골머리를 썩히던 비자카드가 OTCard의 가치를 먼저 알아본 것이다.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다

“사업을 20년 정도 해왔지만, IT 벤처는 몰랐기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지 알았으면 시작 못 했을거예요” 김 대표가 웃으며 말을 잇는다. “제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와 환경도 다르고, 솔직히 젊은 직원들과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지요. 하지만 ‘작은 아이디어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자’ 라는 경영관에 함께해 준 직원들이 있었기에 좋은 기술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발상의 차별화와 아이디어의 실천을 중요시 하는 김동규 대표와 신나게 개발하고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이 푹푹 뭉친 클루엠. 그들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은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벤처만의 자유로운 기개를 날개 삼아 세계를 고객으로 기술표준을 세우는 클루엠의 내년이 기대된다.

